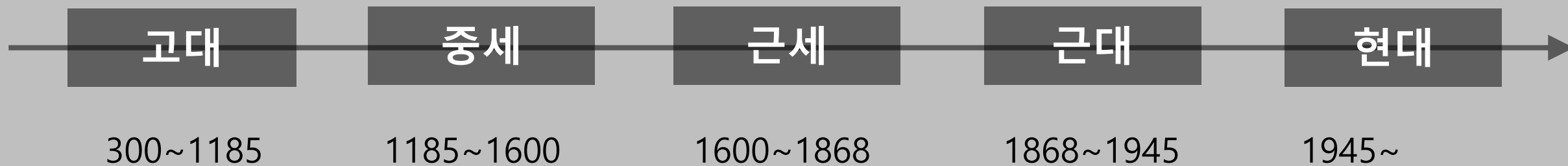



1. 유물과 유적으로 살펴보는 고대 일본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일본사 연표





주제

- 조몬·야요이 시대
- 중국 역사서 속의 고대 일본
- 거대 고분 유적

I 일본열도의 형성

- 한반도 및 대륙과 이어져 있었으나 빙하기 끝나며 분리
 - 해수면의 상승 → 오늘날의 지형 형성 BC 1만 년 전
- 4개의 주요 섬
 -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홋카이도(北海道)

한반도 경로

북방 경로

동중국 경로

오키나와 경로





홋카이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동해

대한민국

황해

혼슈

일본

오사카시
大阪

요코하마시
横浜

규슈

시코쿠

조몬(縄文)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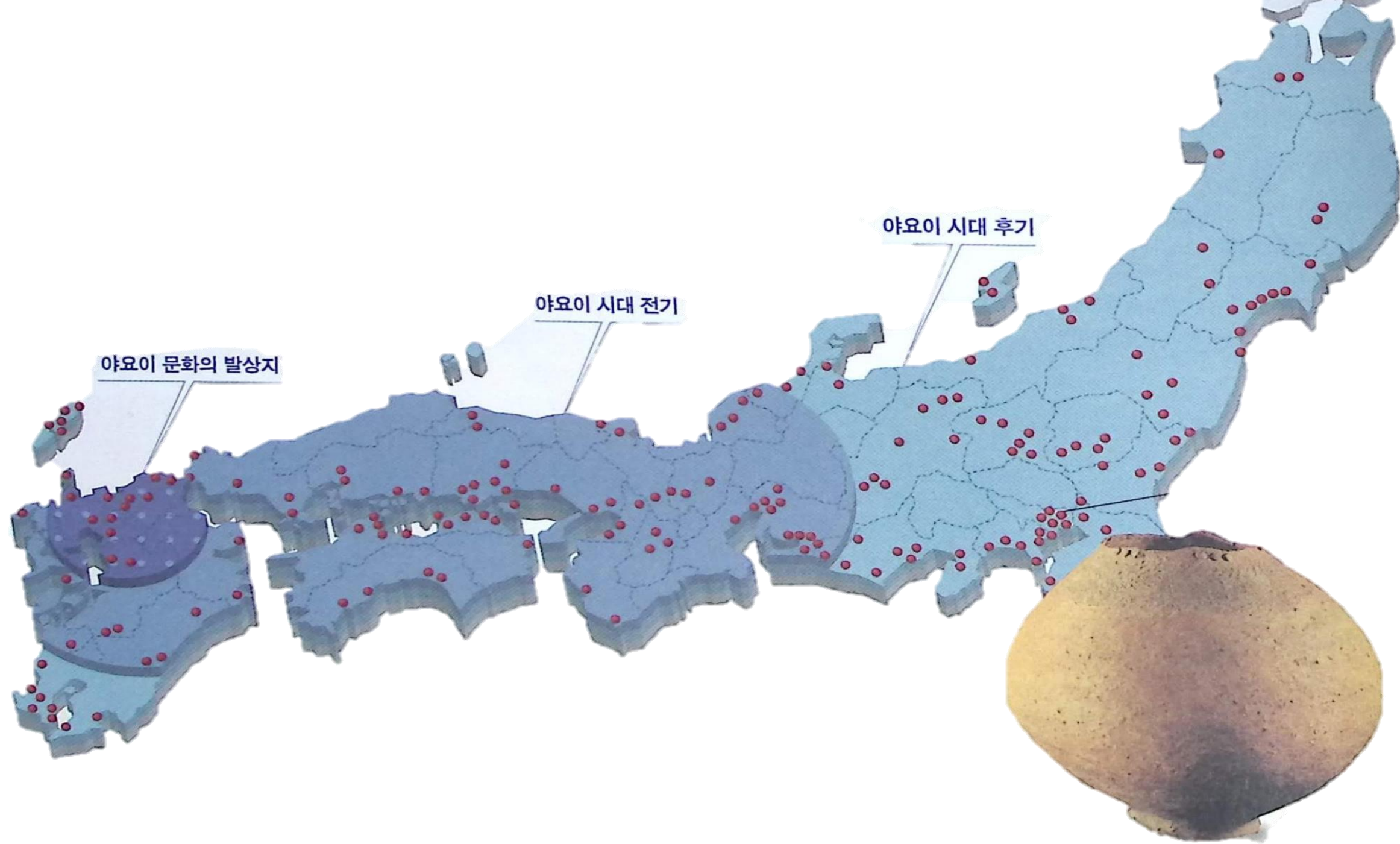
- 시기: BC 1만 년 ~ BC 3C
- 조몬: 縄(노끈 승) + 文(무늬 문)
- 신석기 시대로서의 특징
 - 토기 제작 + 마제 석기
- 특이점: 농경 X
- 동북 지역에 치중된 유적
- 발치(拔齒)와 굴장(屈葬) 풍습





야요이(彌生) 시대

- 시기: BC 3C ~ AD 3C
- 토기가 많이 발굴된 도쿄의 지명(地名)에서 비롯
- 농경(벼농사)의 시작
 - 계급 발생
 - 정치 공동체 구니(國)와 수장 출현
- 금속기(청동기 · 철기)의 동시 사용
- 서일본 지역 중심
- 조몬 시대 유적과 야요이 시대 유적의 병존 현상
 - 조몬 → 야요이 시대로의 이행은 자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 유입에 의한 것?



縄文人と渡来系弥生人の頭蓋骨



縄文人



渡来系弥生人

縄文人と渡来系弥生人の顔の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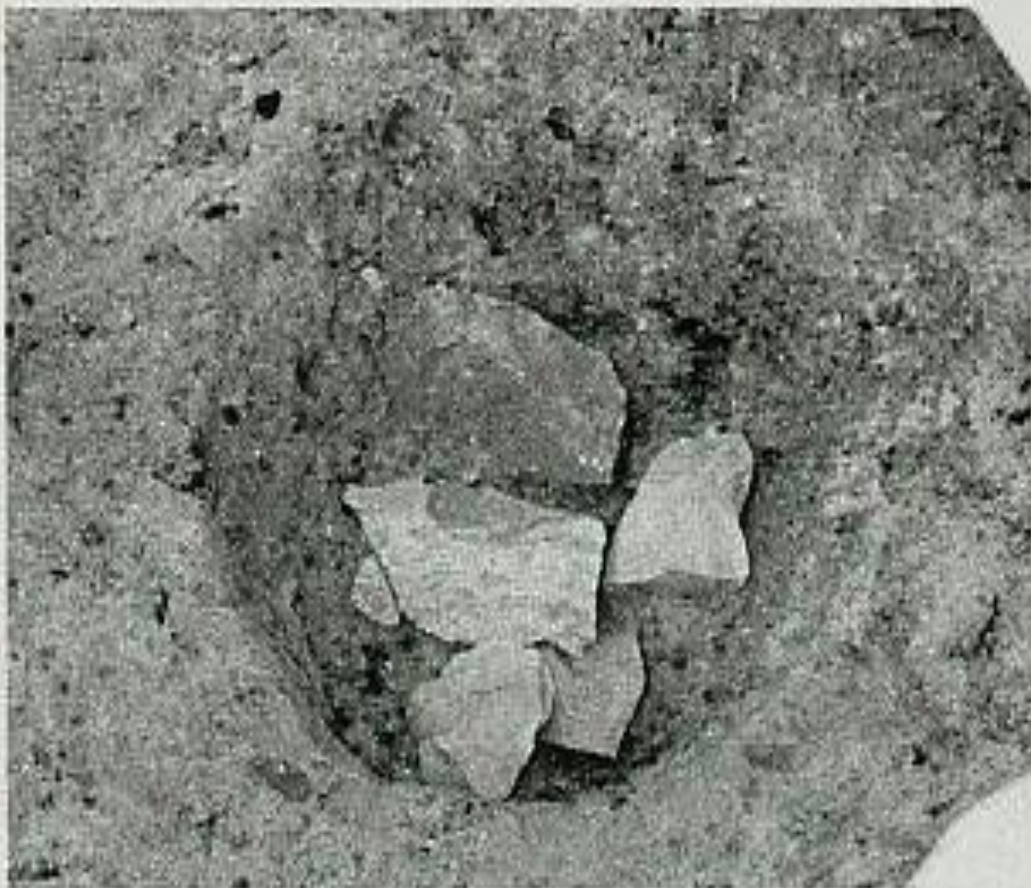
縄文人



渡来系弥生人

일본인은 신석기 시대부터 일본 열도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결론과
그에 대한 반론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 유적 날조 사건(2000)



藤村氏が埋めた場所から掘り出された石器
(10月27日) ↑

10月29日 上高森遺跡
の現地説明会には大勢
の遺跡ファンが集まった →

写真はいずれも「サンデー毎日」11月26日号より





중국 역사서 속의 고대 일본(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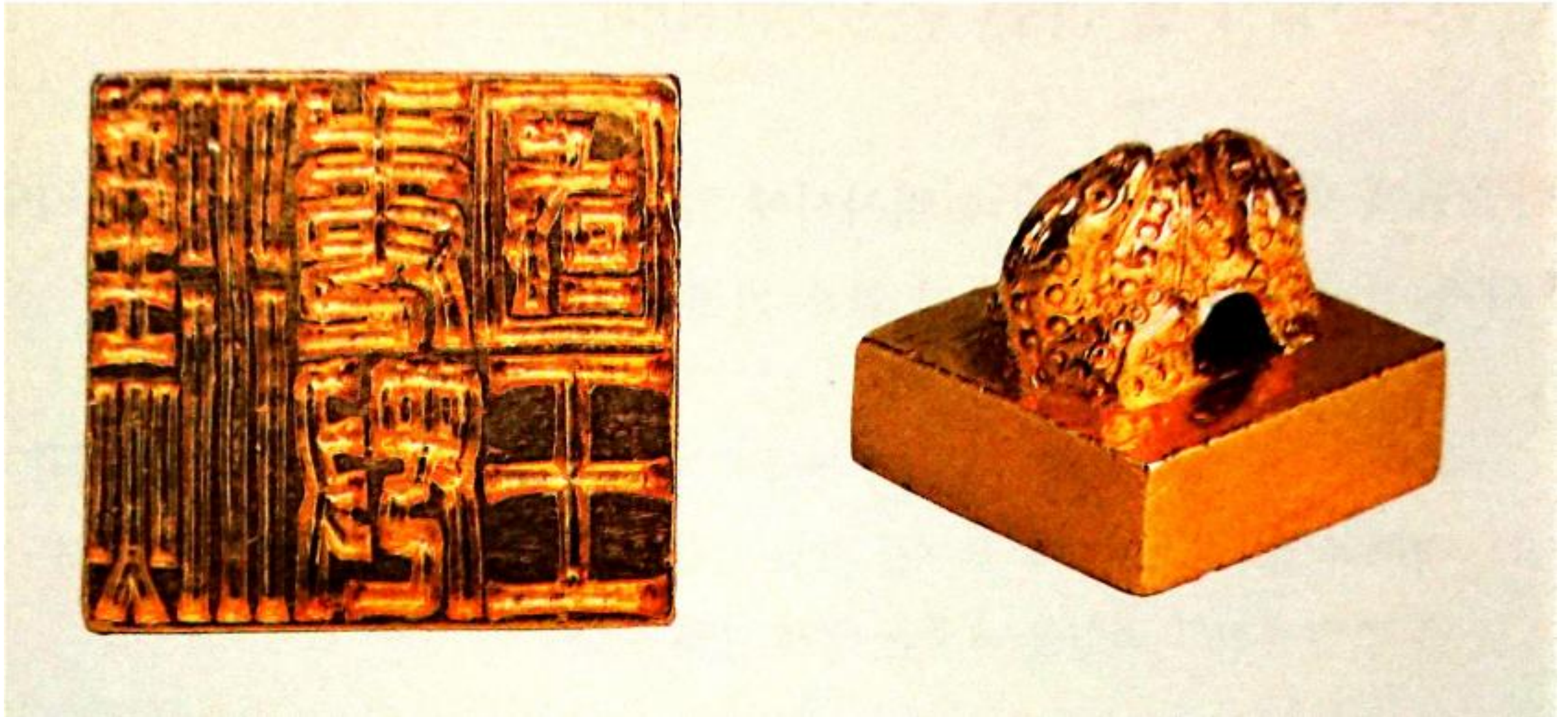
- 『한서(漢書)』 “왜(倭)는 100여 개의 소국 혹은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다”
- 『후한서(後漢書)』 “조공 온 왜노국(倭奴國) 사자에게 인(印)을 수여했다”
- 『위서(魏書)』 “2세기 후반 소국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나
히미코(卑弥呼)가 왜국왕으로 추대되면서 전쟁을 수습했다”
- 『송서(宋書)』 “5세기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라는
왜의 다섯 왕이 송에 조공하여 책봉했다”

I 야마타이 국(邪馬臺國)

- 3C 무렵 존재한 구니(國)들의 맹주격
 - 여왕 히미코(卑弥呼)의 통치
 - 히미코의 국제 외교
 - 중국의 위(魏)에 조공²³⁹ → 「왜왕(倭王)」이란 칭호 받음
 - 철의 확보 위해 한반도와 교류
- (『삼국사기』 신라 아달라 왕 20년 “왜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어 인사”)

야마타이 국 사신의 추정 경로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이라 적힌 금인(金印)

한반도의 국가들과의 교류

- 칠지도(七支刀) : 4세기 중반 백제 증여설
- 일본의 수장들은 주로 백제 및 가야와 손잡고 한반도에 관여
- 고구려와의 갈등
: 광개토대왕비, 왜왕 무(武)의 상표문(上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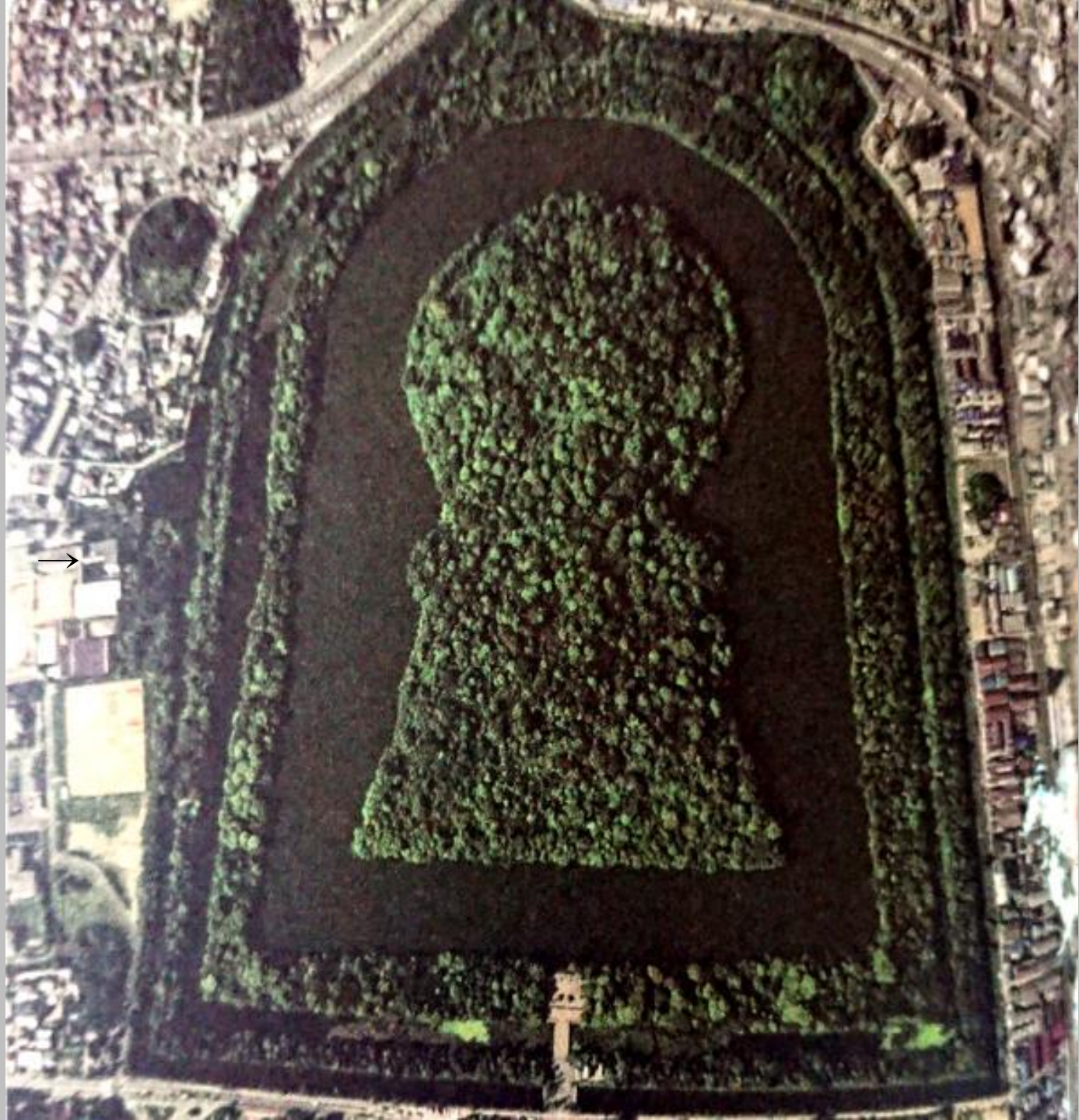


“신은 비록 어리석지만 선대를 이어 나라를 평안하게 통솔하고 있으며 천자에게 가는 길은 백제를 통해 가야 하기에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 하고 변방에 속한 곳을 노략질하여 살육을 그치지 않으니 매번 지체되어 바람을 놓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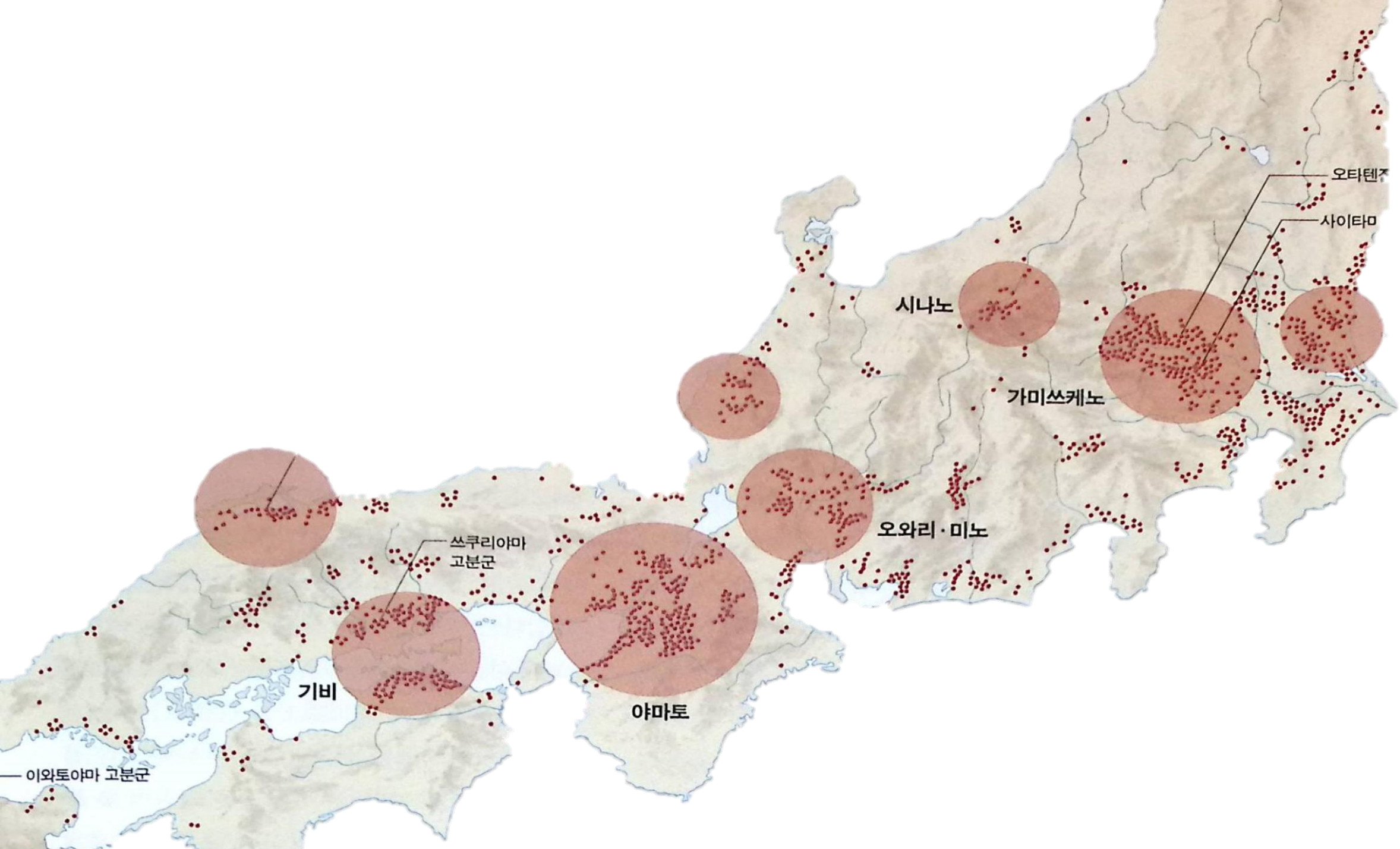
-왜왕 무(武)의 상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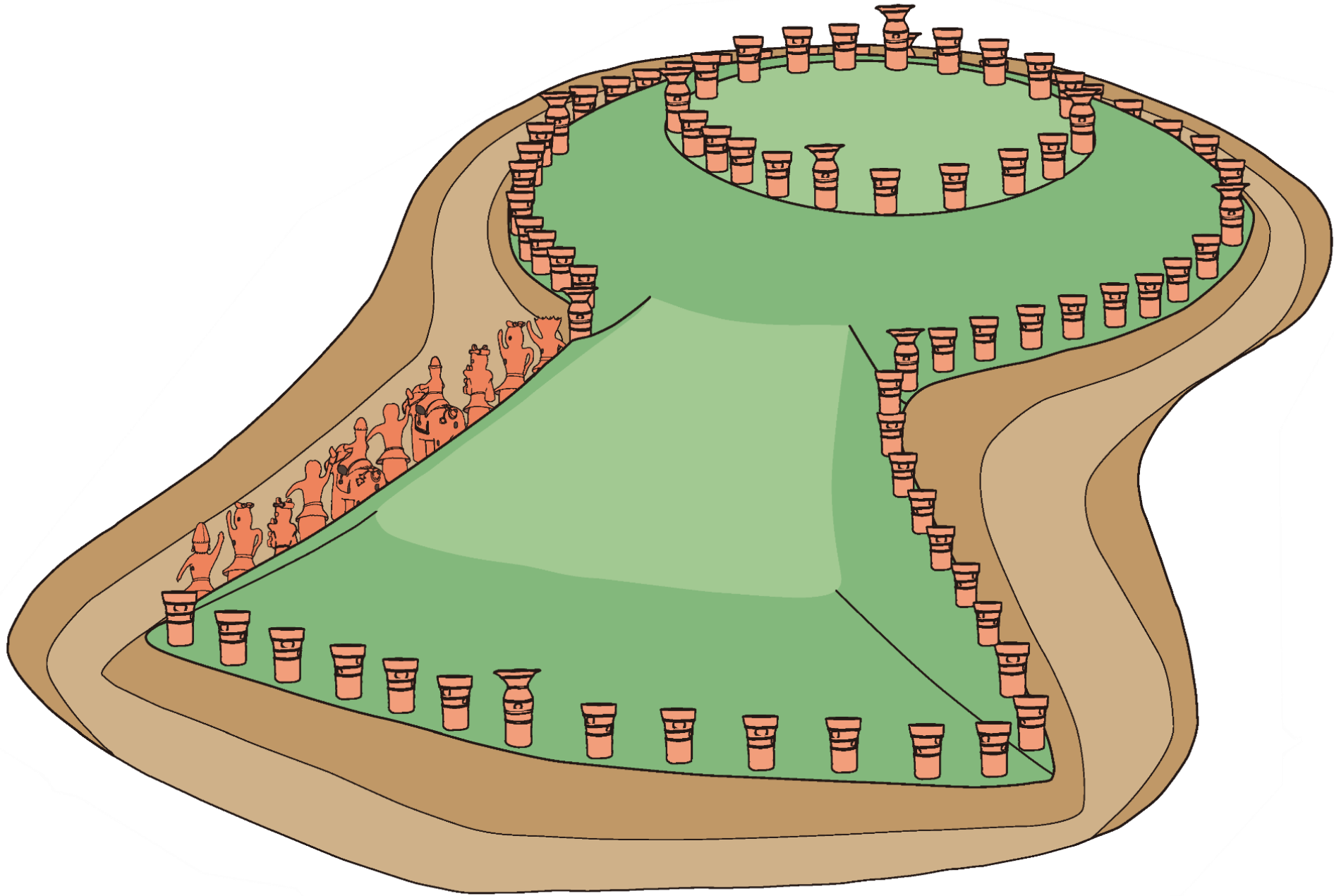
I 고분(古墳) 시대

- 시기: 4~7C
-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 무덤 + 제사단이 합쳐진 형태
 - 거대 석실과 부장품
- 6C 이후 전방후원분의 규모 축소 & 개수 감소
← 불교의 전래 영향?











감사합니다